표해록·송강집·면암집… 3000여 호남 한문 문집 집대성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호남기록 문화유산 발굴·집대성 콘텐츠화' 사업 펼쳐

광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의 하나가 '무등산'이다. 무등산을 소재로 한 작품 중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작품은 19세기에 그려진 작자 미상의 채색화 '무등산도(62x103㎝·사진)'다. 원효사·약사암·서석대·입석대 등이 표기돼 있는 이 그림은 아쉽게도 영남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몇년전 광주시 광산구 임곡동 행주 기씨 집성촌의 사랑채에서 '송담(松潭)이라 쓴 현판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현판은 고종 때 명필로 이름난 석촌 윤용구(1853~1937)가 쓴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사료였다.

광주·전남 지역 기록문화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려는 움직임들은 지금까지 미미했다. 영남 지역의 경우 경북 안동에 한국학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국학진흥원을 설립, 영남 지역의 고문헌과 목판 기록물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고 있다.

여기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지만 (재)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과 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이 '호남기록 문화유산 발굴·집대성 콘텐츠화' 사업은 그 출발점으로 삼을 만한다. 두 단체는 지난 2010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돼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은 문집, 지방지, 고서화, 누정 현판, 고문서, 일기 자료, 한글 고문헌, 호남인물검색 시스템 등 모두 8개 분야로 세분화해 기록문화를 발굴·집대성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특히 각 자료들을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중이어서 사업이 완결되면 누구든지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역에 산재한 기록물들은 단순히 과거의 자료들이 아니다. 현재의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일기'는 옛날의 생활상을 그대로 알려주는 귀한 자료다. 음식, 의복, 주거 등은 물론 당시의 성생활까지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록물이다. '편지' 역시 마찬가지다.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전하는 간찰을 통해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미암일기'의 경우 관련 논문만 20~30권이 나올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정통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연극작품의 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약 1000여종으로 추정되는 '지방지'는 지역학을 연구하는 일차적 소스로 꼭 필요한 자료다. 송강 정철, 고산 윤선도, 어우당 유몽인 등 지역 출신 문인들이 쓴 3000여점권의 '문집' 역시 꼭 챙겨야할 문화유산이다.

그밖에 호남 인물 1만여명을 소개하는 '호남인물검색 시스템'은 호남학 연구의 기반이 되는 분야다.

광주일보사는 전문가들이 일기, 서간문 등 분야별로 집필하는 5번의 시리즈를 통해 호남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호남한문고전연구실 김대현 교수는 "옛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작업은 과거를 알아가는 것임과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문화자원을 확보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호남의 기록문화유산 ① 문집

'손효자는 입술이 타고 입이 마른 사람을 살펴서 고루 나누어 마시고 먹게 했으나, 단지 혀만 적시게 했을 뿐이다. 며칠 뒤 감귤과 청주조차 다 없어지자, 마른 쌀을 씹기도 하고 오줌을 받아 마시기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오줌마저도 잦아버렸고, 가슴이 타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孝子視人之唇焦口爛者 均分飮食之 止令沃舌. 數日柑酒俱盡 或細嚼乾米 掬其溲溺以飮 未幾溲尿又竭 胸膈乾燥 不出聲氣 幾至死域)'

나주 출신 문인 최부(崔溥 1454~1504)의 개인문집 '금남선생집' 중 '표해록(漂海錄)에 실린 글의 일부이다. 그의 표류기는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널리 읽혀졌다. 도쿠가와시대(德川時代)에 여러가지 판본과 사본이 통용되고 있었을 정도였다.

최부는 제주도에 있던 중 아버지의 상을 당해 고향인 나주로 가기 위해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한다. 위 글은 표류하는 중 마실 물이 없어 오줌까지 받아 마시는 극한적 상황을 담고 있다. 이렇듯 문집은 옛 것이라 고리타분한 것이라 아니라 현대에까지 생생하게 선조들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문집(文集)은 기록문화유산의 총화라고 할 수 있다. 문집은 문학 · 사학 · 철학 이른바 '문사철(文史哲)' 분야는 물론 자료학, 국학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문집에는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당시의 역사적 상황, 사회적 상황을 알 수 있는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호남에는 뛰어난 업적과 훌륭한 문학 작품을 남긴 인물들이 많이 있다.

임진왜란 중 포로로 일본에 잡혀갔던 이가 있다. 바로 영광 사람인 강항(姜沆·1567~1618)으로, 그는 온 가족이 배로 피란을 떠났다가 왜적에게 잡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일본에서 약 3년간 머무르다 조선으로 돌아오는데, 일본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세 차례나 탈출을 시도하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하고, 조선으로 가는 배삯을 마련하기 위해 글품을 팔아야 했다. 그렇지만 강항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일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선을 위한 계책을 마련하여 글을 써서 조선에 보낸다.

또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일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적중문견록'도 조정에 올린다. 그의 이러한 행적은 그의 문집인'수은집'에 들어 있는 '간양록'이라는 글로 확인할 수 있다.

'면암집'을 남긴 최익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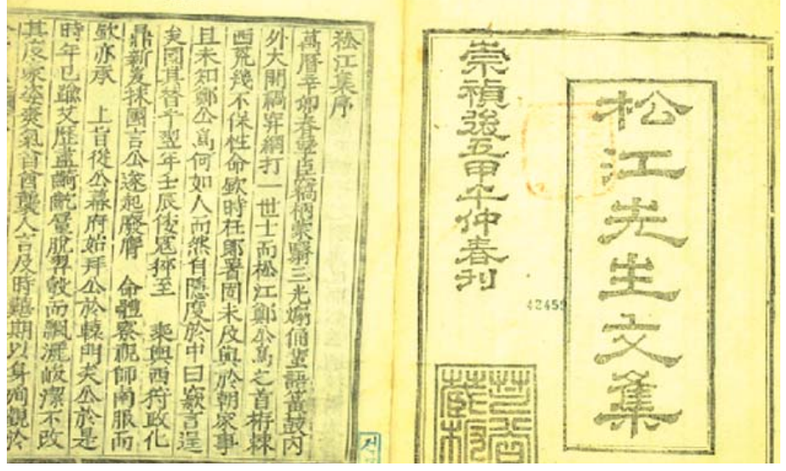
지금도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담양 소쇄원을 창건한 양산보(1503~1557)와 후손들의 '소쇄원사실', 조선 중기의 대표적 성리학자 기대승(1527~1572)의 '고봉선생문집',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약한 고경명(1533~1592)의 '제봉집', 대표적 가사 '관동별곡'을 남긴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1536~1593)의 '송강선생문집', 대표적 연시조 '어부사시사'를 남긴 시조문학의 대가 윤선도(1587~1671)의 '고산유고', 대마도에서 숨을 거둔 한말 의병장 최익현(1833~1906)의 '면암집', 한말 대표적 성리학자 전우(1841~1922)의 '간재집',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자 '절명시'를 남기고 자결한 황현(1855~1910)의 '매천집' 등도 소중한 유산들이다.

호남에 약 3000종에 달하는 한문 문집이 있다는 것은 예향으로서 호남의 위상을 잘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호남은 영남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문집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부족하다.

한문 문집은 많은 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실되고 손상되면 문집이 영원히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는 한국고전번역원과 문중에서 작업한 약 150종 정도만 영인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서 스캔하여 원문을 제공하는 일부만이 있을 뿐이다.

현재까지 호남한문고전연구실에서는 2010년에 130종, 2011년에 200종의 호남한문문집을 데이터베이스했으며, 2012년에는 300종을 기초 데이터베이스화할 할 예정이다. 매년 순차적으로 진행, 2019년까지 약 3000종으로 추정되는 호남의 모든 한문 문집을 기초 데이터베이스화할 계획으로, 2019년에는 호남한문문집 기초 DB를 완성한다는 복안이다.

가사문학의 대가 정철의 '송강선생문집' 표지



'송강선생문집'의 시작 부분

문사철 중요 토대 … 역사·사회 상황 묘사
후손들 관심 연구 부족… 유실 손상 우려
2019년까지 DB화로 한눈에 볼 수 있게

데이터 수록 내용은 문집의 이미지(제목, 목차, 서문 등 일부만 제공), 간명해제, 세부목차, 소장처 등이다. 이미지는 문집의 표지, 목차, 서, 발 등을 사진으로 찍은 것으로 문집의 형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문집의 주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제에는 저자의 생몰 · 문인관계 · 주요 행적 등 저자의 전기적 사항이 실려 있고, 문집의 서지사항 · 간행과정 · 주요 내용 등 문집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호남한문문집 DB에는 이미 알려진 인물의 문집뿐 아니라 학계에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작품을 남긴 인물의 문집까지, 고려시대부터 20세기까지 전 시대를 아울러 호남한문문집이 총망라된다. 관련 자료들은 '호남기록문화유산'홈페이지(wwww.honamculture.or.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문의 062-530-5022.

/글=김미선paraoho@hanmail.net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연구원〉

이 기사는 (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후원으로 제작 되었습니다.